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14기 김영기, 23년 2차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14기 김○○입니다. 수험생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 힘든 시기를 넘기고 수기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이 자랑스럽고 믿기지가 않네요. 저의 수기는 참고로만 활용해 주세요. 사람마다 공부법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작성해봅니다!

[필기] 총점 207.5 (0.8배수) = 형법95 경찰학77.5 헌법35

저의 필기 준비 기간은 4개월입니다. 군 휴학하고 복학 전에 테스트 삼아 본 시험에서 우연히 붙게 되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결과 최종 합격했습니다. 우선 필기는 기본, 심화, 문제 풀이(모의고사)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형법: 형법은 이해 위주로 먼저 공부하고 회독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 단계에서는 개념을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복습은 가볍게 여러 번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심화에선 하나도 안 놓친다는 느낌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거나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다면 이땐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해결하고 넘어가는 습관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회독 땐 자연스레 이해가 잘 되고 오래 기억되어서 시험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심화 과정으로 2회독을 한 뒤에 빠르게 10일 동안 3회독 하였고 그 뒤론 시험이 2주 정도 남아 최신판례 강의와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제겐 중요하다고 느껴지나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최신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은 최신판례가 많이 반영되어서 최신판례를 소홀히 했다간 풀 수 없는 시험이라고 느꼈습니다. 최판은 앞으로도 많이 반영 될 것이기에 평소에도 잘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경찰학: 경찰학은 범위에 따라 공부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공무원법이나 국자법 등은 암기로 접근하는 부분이지만 행정법의 경우엔 응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학은 어제 봐도 오늘 안 떠오르는 특이한 과목이라서 회독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본인만의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셔먼·펠드버그·델라르트의 순서

가 기억나지 않아서 두문자로 '줘(셔)펠라'로 땄더니 쉽게 암기되었습니다. 경찰학도 요즘엔 응용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여러 학원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헌법은 틀만 잘 잡고 기출을 많이 돌려보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헌법이란 과목은 같은 판례가 다른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리는 과목이라서 그저 기출많이 돌리고 최신판례 많이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총점 43점(0.2배수) = 푸시업9 윗몸9 악력7 100m 10 1000m 10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기점수로 38명 뽑는 시험에서 27등 이었지만 체력점수로 7등까지 역전했기에 체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준비기간 중에 체력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못해도 주에 2회 이상은 운동해서 유지했습니다.
필기 합격 후 체력시험까지 약 한달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한 달간 아침·점심·저녁 하루 3타임 주5일 운동해서 첫 테스트점수 36점에서 시험점수 43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면접]
경찰면접은 첫째 자료준비, 둘째 말하기 연습, 셋째 자신감과 솔직함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터디와 연습하면서 동시에 교수님들 앞에서 연습해보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확실히 경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말하기 습관 중에 저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내뱉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수님께 피드백 받아 고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초청하시는 분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저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료준비도 항상 열심히 했더니 집단면접에선 모두 준비했고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와서 수월하게 진행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찰은 범죄자를 맞이하는 입장으로서 쫄지 않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더라도 쫄지 말고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넘기는 것도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평]

필기를 준비할 때 1학년 때 공부했던 법률 지식이 남아있어서 다른 초시생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도 학업에 열심히 한다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이니 열심히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곽영길 교수님의 소송법 체계강의와 윤황채 교수님의 총론 강의가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법체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간절하게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